

# 신자유주의와 종교관련 연구사 검토

경제위기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 모색

---

이혜정

영남신학대학교 조교수, 종교학 전공

kamihye@ytus.ac.kr

---

- I. 머리말
  - II. 종교 연구자들의 연구사 검토
  - III. 기독교 연구자들의 비판과 대안
  - IV. 맺음말
-

## I. 머리말

---

오늘날 언론에서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사전적 의미로 경제위기는 '생산·분배·소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이 균형을 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경제위기의 의미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사회의 모든 체제와 질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내재적 사상에 최고 가치로 자리 잡게 된 현상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경제영역을 넘어 사회·정치·문화·종교에 스며들어 경제척도가 가치와 윤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위기는 경제로 인해 야기된 사회전반적인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와 사상,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1970년대부터 영미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출발해 점차 제3세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중심에 있다.

한국종교계 연구자들은 경제체제이자 경제정책으로 출발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전반적인 정서와 질서를 지배하고 윤리가치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해 왔다. 본고는 경제위기와 종교계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사검토의 방식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의 종교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종교계 연구자들은 어떻게 수용, 비판하는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분석하는지 그 경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결국 오늘날 돈의 위력, 곧 그 실존적 전환 능력(the transformative power of money existence)은 새로운 인간상, 곧 “경제 인간(economic man)”을 창출해 내고 있다. 다가오는 세기 정보산업사회에서는 돈이 인간의 행동과 자유선택의 방향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새롭게 해석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권대사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과 돈이 함께 궁극적인 실재(ultimate reality), 곧 사물이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길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제임스 구스 탑슨은 말하기를 “To say something theological is to say something about how things really and ultimately are”라고 했는데 한 신학자의 이러한 견해피력은 우연한 반응이 아니라 21세기 재물의 위상전환을 암시하는 여러 사회경제학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소신 있는 발언이라 하겠다.<sup>1</sup>

IMF사태를 경험하기 시작한 1997년 한국사회는 앞으로 모든 가치 중에 경제가 최우선적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김중기의 언급은 틀리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온 서구의 투자자본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이식되면서 그 역기능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의 자유와 무한경쟁의 명분으로 사유재산 추구가 정당화되고 소득 재분배의 불평등구조는 개인능력과 노력여부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치부되면서 점차 경제적 능력이 인간의 윤리, 가치, 정의의 척도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가 윤리, 가치, 정의와 상충될 때 종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종교계에서 신자유주의는 흥미로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종교는 궁극적

---

1 김중기, 「무한경쟁 경제시대와 기독교 기업인의 대응책: 재물과 신앙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 『기독교사상』 41(3)(1997), 44쪽.

인 현실차원에서 사랑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인류애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실천으로 구제에 힘쓴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무한경쟁구도에서 발생하는 약자의 문제, 양극화의 심화현상 등에 종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본고는 신자유주의 논의에 대한 한국종교계의 연구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사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경향과 연구자들의 관심, 비판의 논지와 대안의 분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2</sup> II장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을 기존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현상에 대한 기존연구의 등장시기와 연구주제들을 분석하고 연구자들의 성향과 특징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또한 기존연구의 주제와 그 근거를 고찰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와 종교와의 연관성 및 신자유주의가 종교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에 나타난 각 종교별 연구의 특징도 다룰 것이다.

III장은 신학자들의 비판과 대안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여기서 신학자들의 논의만을 다루는 이유는 기존연구를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가톨릭 기존연구가 다루는 주제와 근거들, 그리고 그 특징과 경향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비판론을 전개하는 개신교 신학자들의 비판의 근거와 배경, 관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본고의 자료범위는 논지의 집중을 위해 제한적인 자료 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삼은 한편 연구논문은 '신자유주의'가 명시된 것들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종교단체나 기관의 입장이나 견해, 또는 종교와 경제관련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경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명제에 집중하였음을 밝힌다.

본고의 연구사 검토 작업은 신자유주의 관련연구의 지형도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영향력을 한국종교계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어떠한 주제와 근거들을 주로 연구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연구가 20년 이상 축적된 현 상황에서 연구사 내용검토는 앞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연구의 경향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인식의 한 단면을 비판적 고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종교 연구자들의 연구사 검토

한국 종교계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그 현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하고 난 이후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관련한 종교계의 기존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몇 편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종교계의 연구경향은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나 지지 입장을 다룬 연구는 찾지 못했다. 종단별로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계에서의 연구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종교계에서 신자유주의 관련주제로 처음 등장한 논문은 1998년 『세계의 신학』에 발표된 이창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세계민중들의 투쟁과 연대”이다. 당시 저자가 속한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는 1998년 설립된 사회진보연대의 소속기관이다. 사회진보연대<sup>3</sup>는 1998년 이후 새로

---

3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

운 대안적 사회운동을 지향하며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발생한 다양한 계층의 억압과 폭력의 심화를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창근의 논문은 신학저널에 게재되었지만 엄밀히 말해 종교적 분석이나 관점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계 연대단체들, 즉 사회진보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세계의 연대운동을 소개하면서 실천적 대응방안에 주목하였다. 논문이 게재된 『세계의 신학』 저널은 한국기독교연구원<sup>4</sup> 학술지로서 이 단체는 1988년 홍정수 박사를 중심으로 세계신학연구원 설립에서 출발하였고 역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창근은 경제적 차원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피력하였다. 세계화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앵글로 색슨 정부들의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그 모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세계화로 인한 구조적 모순은 첫째, 초국적 기업 등장으로 인한 제3세계 노동자의 착취현상과 둘째, 생산과정의 하도급, 즉 공급자의 구조적 통제아래 일어나는 노동시장의 분절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며 이를 돕기 위한 조치로서 자유무역 협정과 투자자유화 협정이 현저히 발전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제3세계를 위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이창근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거스르기 위한 세계적인 연대운동을 대안으로 소개<sup>5</sup>하고 있다.

---

4 한국기독교연구원 홈페이지([historicaljesus.co.kr/x/](http://historicaljesus.co.kr/x/)).

5 1996년 멕시코 라칸돈 정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인류를 위한 제1차 대륙간 회의”; 1997년 스페인 마드리드 제2차 PGA대회; 1997년 ‘대안적 삶을 위한 세계포럼(World Forum for Alternatives)’; 1998년 스위스 제네바, 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 구성; 1998년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민주주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아시아 회의(Asian Conference), APEC반대 네트워크(People Summit, No-to-APEC), NAFTA반대 네트워크(서반구노동자회의(WHC), 서반구노

그의 논지와 대안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서구사회의 경험과 기존연구의 맥락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닥칠 신자유주의 영향력을 예상하고 있다. 논지의 핵심은 첫째 신자유주의의 허상 및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연대운동의 필요성 및 참여 독려이다. 이후 종교적 관점과 분석이 가미된 기존연구들이 발표되지만 이창근이 제기한 두 가지 논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이때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한국종교계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관점의 기존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도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 진보진영에서 주로 발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종교적 분석이 등장한 것은 1999년 발표된 성정모와 채수일, 두 편의 논문이다. 브라질 해방신학자인 성정모<sup>6</sup>는 종교혼합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개하였는데 세계화의 필연적인 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시장우상숭배로 규정하였다. 신성화된 신자유주의의 시장우상숭배는 무한경쟁에서 소외되는 가난한 이들을 무능력자로 치부하는 한편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요인으로 인식하여 모든 이들에게 부의 무한축적과 무한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첫째, 무한경쟁의 희생자들을 옹호하는 일과 둘째, 부자나라 엘리트층 모방을 근절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문화적 동질성을 극복하고 지역적 가치, 또는 상징과 대화하며 인간화하는 교육론으로서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채수일<sup>7</sup>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경제신학이 우리 시대 신학의

---

동자회의지속위원회(WHCCC). 이창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세계민중들의 투쟁과 연대」, 『세계의 신학』 41(1998), 62-67쪽.

6 성정모, 「세계화된 세계에서 복음선포와 민족문화」, 『신학연구』 40(1999), 159-174쪽.

7 채수일, 「한국의 경제위기와 선교신학적 과제」, 『신학연구』 40(1999), 147-158쪽.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경제신학 개념은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성정모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한계가 경제적 불평등과 시장우상숭배라고 지적한 그는 대안으로서 교회의 내적개혁운동, 교회의 대안적 소비실천운동, 신자유주의를 거스르는 연대운동참여 등 실천운동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김항섭과 김광식,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항섭은 성정모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연구자이고 김광식은 토착화신학자인 점에서 한국기독교연구자 중 진보진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항섭은 신자유주의 담론의 종교적 특성을 주목하면서 종교와 경제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시장경제에서 하나의 공고한 체계로 자리 잡히면서 마치 대체 불가능하고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 성스러움을 체득해 가면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고유한 관점과 해석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sup>8</sup>하였다. 이것은 경제질서가 절대화되어 인간사고까지 경제적 합리성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논지에 따르면 이 과정은 신자유주의가 체득해 온 종교성, 또는 종교화된 신자유주의, 절대화된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김항섭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구조적으로 저항하는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중남미 신학자들의 연구기조<sup>9</sup>를 따르고 있다. 이후 그는 관련주제 연구를 여러 편 발표하였는데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인한 절대성을 비판적 분석한 연구<sup>10</sup>와 일련의 소비행위가 물신숭배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구원론, 또는 시장근본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

8 김항섭, 「신자유주의 담론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고찰」, 『종교연구』 21(2000), 159-179쪽.

9 프란츠 힌켈라메르트(Franz J. Hinkelamert)의 논지를 중심으로 경제와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0 김항섭, 「신자유주의 유토피아 비판」, 『신학연구』 42(2001), 431-447쪽.



연구<sup>11</sup>를 발표하였고 지역학 분야로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신자유주의 연구에 집중<sup>12</sup>하였다.

김항섭이 신자유주의 현상의 종교적 성격과 특징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면 김광식<sup>13</sup>은 현대신학의 흐름 안에서 신자유주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신학사적 분석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김광식은 무한경쟁체제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승자독식체제에서는 윤리, 가치관,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으므로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성경)본문으로 회귀하라는 메시지를 결론으로 던진다. 여기서 본문이란 성경텍스트를 한국인의 존재론적 의미로 읽어내야 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양고전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신앙적 실존과 공동체의 삶 등을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결론은 토착신학자인 그의 신학 연구경향성과 맥락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실존적인 신앙인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토착신학자로서의 그가 원론적 대안을 넘어 한국인의 신앙실존적 적용으로 구체화된 대응방안이나 적용사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2001년 『기독교사상』 1월호는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논문<sup>14</sup>을 여섯

- 
- 11 김항섭, 「신자유주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고찰」, 『종교문화연구』 5(2003), 121-137쪽.
  - 12 김항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6(2)(2003), 125-167쪽; 김항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8(1)(2005), 103-136쪽; 김항섭, 「안데스 원주민 공동체경제:에콰도르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9(1)(2017), 41-67쪽.
  - 13 김광식, 「현대신학의 큰 흐름: 실존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학논단』 28(2000), 81-96쪽.
  - 14 2001년 1월호 『기독교사상』에 게재된 신자유주의 관련 논문은 총 6편이다. 이찬근,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상』 45(1)(2001), 14-27쪽; 조준상,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물결, 어디까지 왔나」, 『기독교사상』 45(1)(2001), 28-43쪽; 위평량, 「신자유주의와 NGO의 역할」, 『기독교사상』 45(1)(2001), 44-59

편 게재했는데 그 중에서 종교적 분석이 담긴 논문은 네 편<sup>15</sup>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여섯 편의 논문에 깔려있는 기조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라는 점이다. 위 논문들이 지적하는 비판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가진 윤리와 가치, 정의차원에서의 모순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운동의 필요성과 참여독려<sup>16</sup>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은 이전에 발표된 기존연구의 맥락과 다르지 않다.

2007년 김성건<sup>17</sup>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종교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세계종교의 변화와 양상은 사적 기능이 증가하는 동시에 공적 영향력 감소, 체험적 영성의 부흥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에 담긴 신자유주의와 종교적 관련성을 분석<sup>18</sup>하면서 향후 생명공학 영역이 첨단기술에 의해 발전되면 사회정의, 분배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인데 여기에 종교가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남미 해방신학과 성령운동의 상호관련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신자유주의적 배경과 현상의 범주에서 분석<sup>19</sup>하기도 하였다. 그의

---

쪽: 홍순원, 「경제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 신학윤리에서 본 신자유주의」, 『기독교사상』 45(1)(2001), 60-69쪽; 권진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속에서의 그리스도 고백」, 『기독교사상』 45(1)(2001), 70-86쪽;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기독교사상』 45(1)(2001), 87-102쪽.

15 홍순원(2001), 위의 논문; 이찬근(2001), 위의 논문; 위평량(2001), 위의 논문; 채수일(2001), 위의 논문; 권진관(2001), 위의 논문.

16 특히 위평량, 채수일의 논문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연대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7 김성건, 「The Privatization of Religion and Selling Spirituality in the Mids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사회와 이론』 제11집 2호(2007), 281-302쪽.

18 김성건, 「세계화, 생명공학 그리고 종교: 사회학적 관찰」, 『담론201』 10(2)(2007), 227-258쪽.

19 김성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성령운동의 영성과 해방신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08), 436-449쪽.

연구들은 신자유주의가 세계종교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와 종교의 상호관련성과 역학관계에 주목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 기존연구의 경향성은 주로 기독교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연구성향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펴고 있으며 연구자들 성향은 기독교 진보진영 논리에 속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를 종교적 관점에서 옹호하는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현상인데 2020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보수단체의 애국집회와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기독교적 신앙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종교적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의견이 나타나지만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학술연구논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타 종단 연구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소수에 불과<sup>20</sup>하다. 특이한 점은 기독교계의 연구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일색인 반면 타종교계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양적으로 기독교 이외 종교계에서 신자유주의를 다루는 논문은 몇 편 되지 않지만 기존연구 분석결과 모두 긍정적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다.

---

20 정승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불교의 대응」, 『한국학논집』 59(2015), 475-492쪽; 박승길, 「종교시장의 세계화와 신종교운동의 대응」, 『신종교연구』 25(2011), 1-23쪽; 박혜훈, 「세계화 시대의 원불교 세계교화 방향: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5(2011), 61-83쪽.

예외적으로 가톨릭의 관점은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은 직제 특성상 개신교 신학계처럼 다양한 연구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항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관한 가톨릭 사회교리를 분석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sup>21</sup>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과 가톨릭 사회교리 전반을 다룬 논문이 있다. 여기서 저자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세계화를 중립적으로 인식, 그 활용주체인 인간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작 세계화나 신자유주의현상을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개개인 인간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개신교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연구 경향성이 비판적이라면 가톨릭은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기존연구에 나타난 타종교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 전망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김성건이 언급했듯이 세계종교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무한자유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기성종교에는 새로운 도전과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 종교전통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이 나타나는 종교트렌드 중에는 종교의 공적기능 약화, 개인의 영성체험 추구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근대 이후 급성장시기를 누린 한국개신교계는 이러한 변화하는 종교상황에서 안팎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기존 체제를 급변시키기 쉽지 않다. 또한 한국개신교가 점차 보수화 과정 중에 있으며 주류세력이 보수층이기에 변화는 더욱 쉽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타종교계는 무한자유경쟁과 개인영성추구의 트렌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정승안<sup>22</sup>은 한국불교가 대승적 이타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운

21 김항섭, 「세계화와 카톨릭 교회의 대응: 교황 바오로 2세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4(2002), 213-239쪽; 김항섭, 「물질만능, 경제 중심 시대와 가톨릭 사회교리」, 『신학전망』 175(2011), 2-29쪽.

22 정승안(2015), 앞의 논문, 475-492쪽.

동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박혜훈<sup>23</sup>은 원불교 100년 역사를 맞아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 존엄과 상생윤리를 일깨우는 종교적 기능역할수행을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그의 연구에서 언급함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박승길<sup>24</sup>은 전반적으로 신종교계에서는 세계화시대가 오히려 기회임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종단이 주류를 독점하고 있던 종교시장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종교들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무한자유경쟁 환경은 기존 종단에는 도전이며 신종교들에게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한국개신교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개신교 교단의 교세변화와 경쟁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현상으로 한국개신교의 전체 교세감소현상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지만 교단 간의 교세변화와 이동현상을 고려하면 교단간 경쟁구도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한국 개신교는 해방 이후 다양한 교단으로 분화된 상태에서 급성장시기를 지났지만 이후 전반적인 개신교교세가 감소하면서 여기에 신생교단 생성, 일부 교단의 급성장, 수평이동, 기존교단의 체제변화, 합병, 소멸과정이 더해져 교세변화는 다양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도수 기준으로 교세의 상위를 차지하는 두 개 교단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개신교 교세변화<sup>25</sup>는 매년 다채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월 현재, 일부 개신교 교단 중에는 종교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

23 박혜훈(2011), 앞의 논문, 61-83쪽.

24 박승길(2011), 앞의 논문, 1-23쪽.

25 개신교 교세변화는 다음을 참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개신교단 교세변화를 참조. 이혜정, 「통계를 통해서 본 종교인구와 개신교단의 변화」, 『신학과 목회』 44(2015), 381쪽. 2018년 통계자료는 다음을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새 성균기획, 2018), 108-118쪽.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교단자체의 의도적인 통계노출 또는 숨김이 전략적으로 활용<sup>26</sup>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교세통계에서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개신교 교단 중 3위로 집계되었는데 이 교단은 이전 통계에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통계에서도 누락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3월 현재, 최근 몇 년간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교단은 전국적인 규모의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종교통계에 공식적으로

	2002	2008년	2011년	2018년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3	기독교대한 감리회총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칠안식일예수 재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대신)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기독교대한 감리회총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5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정통)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
6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정통)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
8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신)

26 한국의 종교현황 통계자료 구축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중무과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교단별 보고사항을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교단이 통계를 제출할 경우, 통계에 반영되고 통계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누락된다. 주목할 점은 일부 개신교 교단의 의도적인 통계 제외 또는 노출이다. 주로 기존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 인식되는 교단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부 교단은 의도적으로 종교통계에 누락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노출하기도 한다.

나타난 적은 없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교단에 대한 일종의 눈치 보기, 신도의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의 차단 등, 일종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경쟁체제가 기존교단에는 위기이며 기존교단에 의해 배제되어 온 교단이나 신흥교단, 타 교단에는 도전이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 Ⅲ. 기독교 연구자들의 비판과 대안

앞 장에서 신자유주의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연구자들의 비판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타종단 연구자들의 논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연구는 전무함을 발견<sup>27</sup>할 수 있었다. 본 장은 기존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 연구자들의 논지 중에서 신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의 논지와 대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하여 그 비판논지와 대안방안을 살펴보고 발견되는 연구경향성을 분석할 것이다.

가톨릭의 기존연구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 수치나 주제별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다. 가톨릭의 기존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가톨릭 사회교리에 등장한 논의에 대한 분석<sup>28</sup>, 그리고 중남

27 여기에는 향후 종교시장에서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계 연구자들이 언급한 긍정적 전망의 기존연구는 제외하였고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긍정적 입장견해를 가진 연구를 의미한다.

28 오세일은 개별 무한경쟁체제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극복을 위한 교육모델로서 참여영성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지는 개별 인간차원에 초점을 맞춘 가톨릭 사회교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오세일, 「교육패러다임과 영성교육: 신자유

미 국가의 해방신학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대응양상과 논지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모와 김항섭에 의해 주로 소개된 중남미 해방신학과 가톨릭 신학자들의 논의는 신자유주의의 종교적 속성과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연대운동, 사회참여, 정치운동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연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진보적인 해방신학 이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에 비해 가톨릭의 사회교리나 교황담화문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비판적 내용이지만 해방신학에 비해 대응이나 실천은 온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신자유주의의 사회구조적 모순보다는 인간본성에 대한 경계와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항섭이 지적한대로 가톨릭교회의 대응이 이와 같은 한계<sup>29</sup>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대한 비판적 교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톨릭 연구자보다 개신교 신학자들의 비판논지와 대안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고 다채로운 편이다. 이것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조직구성상 특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단일종단으로 비교적 통일된 직제구성을 가진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의 활동주체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교단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학의 다양성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자유경쟁체제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를 윤리, 가치,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논지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첫째는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도입한 하이에크의 논지를

---

주의 체제에서 참여형성의 과제], 『신학과 철학』 31(2017), 157-186쪽.

29 김항섭, 「물질만능 경제중심시대와 가톨릭 사회교리」, 『신학전망』 175(2011), 25-28쪽.



비판하는 연구들<sup>30</sup>, 둘째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현상을 윤리, 정의, 가치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연구들<sup>31</sup>, 셋째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시장논리로 환원시켜 그 영향력과 범위가 개인과 국가, 민족경계를 넘어 무력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종교적 성질임을 강조<sup>32</sup>하는 데 초점을 둔

- 
- 30 이봉석, 「기독교 윤리학에서 본 신자유주의 인간이해와 사회 통합의 가능성 연구: 하이에크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125-152쪽; 장운제, 「기독교는 신자유주의를 왜 반대해야 하는가2: 신자유주의의 종언, 역사적 비판주의의 몰락」, 『월간말』 273(2009), 138-139쪽; 장운제, 「광야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 『기독교사상』 49(10)(2005), 50-57쪽.
- 31 박승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직신학논총』 54(2019), 53-96쪽; 박승인,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효율적 이타주의」, 『신학논단』 95(2019), 65-97쪽; 최은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20:1-16)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57(2018), 257-293쪽; 최두현, 「세계화에 대한 로즈마리 류터의 분석과 극복, 한국교회를 위한 재구성」, 『신학논단』 92(2018), 357-387쪽; 오세일(2017), 앞의 논문, 157-186쪽; 이봉석,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시대 노동신학의 필요성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4(2016), 69-102쪽; 김진호, 「자기계발의 시대, 신자유주의적 귀족 교육」, 『제3시대』 99(2016), 7-11쪽; 손규태,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개념과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기독교사상』 694(2016), 234-247쪽; 광호철,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한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 『신학논단』 83(2016), 121-154쪽; 박승인, 「신자유주의 시대와 기독교 신학의 과제」, 『신학논단』 80(2015), 141-169쪽; 김성원, 「자본주의 세계화의 도전과 기독교」, 『한국조직신학논총』 37(2013), 75-101쪽;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6(2012), 15-37쪽; 이혁배,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윤리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1)(2010), 203-223쪽; 이숙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 담론 여성교인의 주체화양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2010), 119-148쪽; 김정숙, 「여성 생태신학과 세계화의 종말: 신자유주의 기업 세계화와 종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대안적 세계에 대한 모색」, 『한국여성신학』 68(2009), 57-82쪽; 정강길, 「신자유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기독교」, 『월간말』 273(2009), 134-137쪽; 홍순원(2001), 앞의 논문, 60-69쪽; 채수일(2001), 앞의 논문, 87-102쪽; 권진관(2001), 앞의 논문, 70-86쪽; 김광식(2000), 앞의 논문, 81-96쪽.
- 32 김성건(2007a), 앞의 논문, 227-258쪽; 박성원, 「세계 장로교회, '신자유주의 반대'를 선언하다」, 『월간말』 222(2004), 140-145쪽; 박성원, 「칼빈의 경제신학과 신자

연구가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들은 신자유주의가 먼저 시작된 서구 영미국가의 경험과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기존연구자들은 자신이 강조하는 논지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 분석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안의 근거도 주로 서구의 경험과 연구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들이 제안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대응방안은 직접적인 개인의 사회운동 참여<sup>33</sup>이다. 사회운동 참여는 그 사상적 배경으로 탈성장, 탈권위, 탈물질, 공공선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그 구체적 대안은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제공, 정치민주화, 경제개혁운동, 시민운동, 공공의료제도, 기본소득제도, 교육기회균등, 교회세습타파, 교회부동산 반대, 교회정치민주화, NGO운동참여와 후원, 신자유주의 저항운동 참여 등이다.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저항운동은 세계적 연대운동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고 거스르기 위한 약자들의 연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연대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이창근<sup>34</sup>, 채수일<sup>35</sup>, 박성원<sup>36</sup>의 연구에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신학이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임을 강조하는 신학적 책임

---

유주의 경제세계화], 『신학과 목회』 22(2004), 175-209쪽; 김항섭(2003b), 위의 논문, 121-137쪽; 김항섭(2000), 앞의 논문, 159-179쪽.

33 손규태(2016), 앞의 논문, 234-247쪽; 박호철(2016), 앞의 논문, 121-154쪽; 김성원(2013), 앞의 논문, 75-101쪽; 김명배, 「일제 식민지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의 교육」, 『현상과 인식』 37(3)(2013), 15-37쪽; 이혁배(2010), 앞의 논문, 203-223쪽; 장윤제(2005a), 앞의 논문, 50-57쪽.

34 이창근(1998), 앞의 논문, 55-70쪽.

35 채수일(2001), 앞의 논문, 87-102쪽.

36 박성원(2004a), 앞의 글, 140-145쪽; 박성원(2004b), 앞의 논문, 175-209쪽.

은 모든 개신교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논조로 등장하고 있다. 박송인은 이러한 명제가 바로 상황신학임을 명명하고 상황신학의 개념과 범주를 볼케 퀴스터, 피터 비어의 논지를 통해 분석설명<sup>37</sup>하였다. 또한 그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상으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를 분석<sup>38</sup>, 소개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경쟁에서 소외된 약자를 지배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숙진<sup>39</sup>은 신자유주의의 자기계발 담론에서 한국교회여성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채 재편된 성별분업에 몰두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억압받는 여성의 실존에서 신자유주의 현실과 기독교전통과 실천에 대한 자기반성과 재구성을 실행할 것을 주장하는 생태여성주의자 로즈마리 래드퍼드 류터의 논의를 다루었다. 최두현<sup>40</sup>과 김정숙<sup>41</sup>은 생태여성주의적 관점이 기독교전통에 대한 의미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현실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교육분야에서 대안은 종교적 가치관과 윤리관의 교육방식으로 피력되었다. 김명배<sup>42</sup>는 문민정부에 의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변화가 일제시대 황국신민화 교육과 유사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교육시장에서 개인은 국가경제에 예측된 기능인 양성, 체제순응형 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진호<sup>43</sup>는 1990년대부터 유행한 한국 대형교회 중심으로 전개된 대안학교운동이나 2000년대 등장한 다니엘학습법 등은 모두 경쟁 구도의 교육사유화,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념에 기초

---

37 박송인(2019a), 앞의 논문, 53-96쪽.

38 박송인(2019b), 위의 논문, 65-97쪽.

39 이숙진(2010), 앞의 논문, 119-148쪽.

40 최두현(2018), 앞의 논문, 357-387쪽.

41 김정숙(2009), 앞의 논문, 57-82쪽.

42 김명배(2013), 앞의 논문, 15-37쪽.

43 김진호(2016), 앞의 논문, 7-11쪽.

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두 편의 연구는 적어도 철저히 한국현실에 기초한 분석과 비판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기반을 둔 다른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이제는 서구경험과 연구의 연장선을 더욱 확장 시켜 한국적 실존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현실과 대안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세일<sup>44</sup>은 가톨릭 신학자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본질이 흐려진 교육계의 대안으로 참여영성 교육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참여영성은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탈물질, 탈주지주의, 탈권위, 공동체,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가치교육이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신학적 일반론에 가까우며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례로서 곽호철<sup>45</sup>은 기본소득제도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격차, 특히 언어의 격차, 의료와 교육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봉석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노동신학을 검토하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노동유연성과 거리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 근거로서 자끄 웰릴, 하난 요나스의 기술문명비판을 활용, 분석<sup>46</sup>하였다. 그는 또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별 무한경쟁체제 아래 개인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성 강화를 위한 대안모색을 폴 리콴트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부정했던 신존재는 폴 리콴트를 통해 재인정될 수 있으며 시장자유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한 제도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의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sup>47</sup>하였다.

기존연구 중에는 성경본문을 현실에 적용하여 원칙적 대안을 제시<sup>48</sup>하는

---

44 오세일(2017), 앞의 논문, 157-186쪽.

45 곽호철(2016), 앞의 논문, 121-154쪽.

46 이봉석(2016), 앞의 논문, 69-102쪽.

47 이봉석(2010), 앞의 논문, 125-152쪽.

48 최은택(2018), 앞의 논문, 257-293쪽; 홍순원(2001), 앞의 논문, 60-69쪽; 권진관,

설교적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성경본문에서 현실의 문제를 대입,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한 몇 개의 논문들이다. 최은택은 ‘포도원주인의 비유’를 통해 기독교적 정의교육의 모형으로서 블레어의 성서교육 5R 모델을 근거로 제시<sup>49</sup>하여 개인의 삶에 성찰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설명하였다. 권진관은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6장 20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 기독교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있음을 상기시켜 자본가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와 약자 등 경쟁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배제하기 쉬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기독교 본질임을 강조<sup>50</sup>하였다.

김광식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사례를 들어 무한경쟁에서 실패한 이도 구원의 대상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한국인의 실존적 삶의 맥락에서 성령역사를 읽어야 한다는 토착신학적 대안을 제시<sup>51</sup>하였다. 홍순원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형제된 존재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감의 사건을 통해 신학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사회적인 주종관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존재로서 사회적 관계를 초월했음을 강조<sup>52</sup>하였다.

이러한 설교적 분석과 적용방식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활용하는 온건한 방식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자체는 중립적으로 인식하지만 이것을 수용, 활용하는 개별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어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기조는 해방신학과 비교할 때 온건한 비판에 해당한다. 개신교 신학자의 대안논의에서도 가톨릭의 경우처럼 온건한 비판과 진보적 대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설교적

---

앞의 글, 70-86쪽; 김광식(2000), 앞의 논문, 81-96쪽.

49 최은택(2018), 위의 논문, 257-293쪽.

50 권진관(2001), 앞의 논문, 70-86쪽.

51 김광식(2000), 앞의 논문, 81-96쪽.

52 홍순원(2001), 앞의 논문, 60-69쪽.

분석과 적용방식은 인간의 죄성에 바탕을 둔 온건한 비판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개인의 회심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 이른바 복음화를 통한 사회구원의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성경적 가르침의 원론적 보편성과 현실에 드러나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경계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구분하는 지점이다.

교의적 관점에서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본질적인 진리가 성서 안에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서 본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는다.<sup>53</sup>

성정모는 이러한 주관적 성서해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주관성 극복의 방법은 지역적 가치와 상징과 대화하고 인간적 교육화를 지향하는 복음화이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여기의 상황에 집중하여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할 것이다. 성경읽기와 의식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실천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적용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학자들의 비판과 대안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 고착화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장우상숭배이며 이러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참여운동, 대안적 소비운동, 연대운동 등을 지지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분석한 비판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근거해 있지만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은 개인적 실천의 범주에 두고 있다. 비판은 교회의 본질과 속성에 근거해 있지만 실천은 개인의 몫이다. 개인의 실천은 확실하고

---

53 성정모, 「세계화된 세계에서 복음선포와 민족문화」, 『신학연구』 40(1999), 165쪽.

구체적인 대안이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극복하는 주체가 오롯이 개인의 차원으로만 환원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거스르고자 하는 경제신학, 또는 상황신학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처럼 집단화,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대안으로서 교회의 내적개혁이 주로 언급되지만 교회가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대안적 실천으로 제시된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저항과 대응의 주체가 개인 뿐 아니라 교회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차원에서의 환원은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성은 2013년 생명평화마당을 통해 제시된 표어<sup>54</sup>를 통해 정리될 수 있다. 생명평화마당이 제시한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 구호와 ‘작은교회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처하는 교회대응의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운동은 현실적으로 한국기독교 내에서 주류가 아닌 소수의 움직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은교회운동은 한국교회의 내적개혁과 사회적 운동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적 분석을 토대로 형성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안운동이다.

현실적으로 보수 기독교가 우세한 한국기독교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기존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학계와 교계현실의 이중성이라는 한국기독교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거꾸로 말하면 진보적 성향의 기독교 연구자들의 논지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기독교가 우세한 이중적인 현상, 이론과 현실의 괴리, 신학과 교회현장의 괴리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

54 생명평화마당 편, 『한국적 작은 교회론』(대한기독교서회, 2017) 참조.

#### IV. 맺음말

---

본고는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종교 연구자들의 대응과 모색을 분석하고 자 기존연구사를 검토하였다. II장은 종교 연구자들의 기존연구를 다루었 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주제들과 근거들, 연구자들의 관심과 성향, 종교별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와 종교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그럼으로 기존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기존연구는 주로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기독교 진보진영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적어도 기존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진영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관된 비판적 논지를 다루고 있었다. 가톨릭 연구자들 은 가톨릭의 사회교리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가톨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현상자체는 중립적 으로 인식하는 한편 그것을 실현, 적용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온건한 비판적 입장과 달리 중남미 국가에 형성된 해방신학은 적극적이고 진보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진 종교적 특성과 본질에 대해 비판적 분석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종교계에서도 무한경쟁체제를 정착시켜 종단간, 교단간 경쟁을 열어놓았다. 공적영역 축소와 함께 사유화된 체험적 영성을 추구하 는 신자유주의적 종교경향성은 기존종교에는 위기이자 신흥종교나 소수종 교에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 종교계에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와 자유경쟁체제가 이미 정착되었고 그러한 근거는 기존종교로부터 이단



시되는 종교단체의 급성장, 개신교 교단 자체의 극심한 교세변화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기독교 연구자들의 비판과 대안을 다루었다. 가톨릭 기존연구에 비해 개신교 신학자들의 기존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기존연구의 논지는 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하이에크에 대한 비판과 둘째는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현상을 윤리, 가치, 정의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내용, 셋째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종교적 특징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 등이다.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안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운동과 실천이다. 진보진영 신학자들의 성향을 반영하듯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각 방면의 사회참여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경본문을 신자유주의적 현실에 적용한 설교적 분석도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적용방식은 가톨릭 교리의 온건한 비판적 입장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다루는 논지의 근거는 서구의 이론과 경험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흐름이 이미 세계적 현상으로 정착되어 한국사회와 한국 종교현실도 그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적이고 토착적인 신학논의가 여전히 비주류로 자리 잡은 현실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인간의 삶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무한경쟁을 통한 자아실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자들에게는 꽤 오래전부터 부정적으로 전망해왔다. 1953년 월터 몰더는 모든 인간이 최소한 갖춰야 할 조건 8가지를 제시하였다.

1. 누구나 생산 잠재력이 있는 한 실용적이며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생에서 노년을 거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
3.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구의 자원 확보와 자연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5. 누구든지 그 능력과 요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 누구에게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재원이 주어지도록 한다
7. 광범위한 영적 가치를 추구할 자유가 부여된다
8. 인격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개인 자신이 경제수단을 통제한다<sup>55</sup>

김중기는 위의 8가지 조건충족이 기독교공동체의 최소한의 대책이자 기독교 경제질서 구축의 규범적 요청이라고 명시하는 한편 이러한 요건들이 골고루 실현되기 위한 척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었는가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자유와 정의를 동시에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자유를 중시하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김중기는 그 실천방안에서 기독교 노동자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것과 기업가는 감동받는 감동경영의 기회로 삼을 것을 덧붙였다. 예수가 제자들을 감화시키고 모범이 되었듯이 말이다.

그의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자유와 정의의 괴리, 신학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느끼게 한다. 신자유주의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다가도 대안으로는 개별 감화력을 앞세우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작과 끝의 논지가 어긋나는 듯하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굳어진 구조적 모순은 1950년대에도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미해결된 과제이다. 그 대안모색과 해법도 시대차이를 넘어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

55 김중기(1997), 앞의 논문, 46쪽.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

한국기독교연구소 홈페이지(historicaljesus.co.kr/xe/).

### 2. 단행본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새 성균기획, 2018.

생명평화마당 편, 『한국적 작은 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2017.

### 3. 논문

곽호철,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한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 『신학논단』 83, 2016, 121-154쪽.

권진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속에서의 그리스도 고백」. 『기독교사상』 45(1), 2001, 70-86쪽.

김광식, 「현대신학의 큰 흐름: 실존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학논단』 28, 2000, 81-96쪽.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6, 2012, 15-37쪽.

\_\_\_\_\_, 「일제 식민지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의 교육」. 『현상과 인식』 37(3), 2013, 15-37쪽.

김성건, 「세계화, 생명공학 그리고 종교: 사회학적 관찰」. 『담론201』 10(2), 2007a, 227-258쪽.

\_\_\_\_\_, 「The Privatization of Religion and Selling Spirituality in the Mids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사회와이론』 제11집 2호, 2007b, 281-302쪽.

\_\_\_\_\_,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성령운동의 영성과 해방신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436-449쪽.

김성원, 「자본주의 세계화의 도전과 기독교」. 『한국조직신학논총』 37, 2013, 75-101쪽.

김정숙, 「여성 생태신학과 세계화의 종말: 신자유주의 기업세계화와 종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대안적 세계에 대한 모색」. 『한국여성신학』 68, 2009, 57-82쪽.

- 김중기, 「무한경쟁 경제시대와 기독교 기업인의 대응책: 재물과 신앙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 『기독교사상』 41(3), 1997, 38-48쪽.
- 김진호, 「자기계발의 시대, 신자유주의적 귀족교육」. 『제3시대』 99, 2016, 7-11쪽.
- 김항섭, 「신자유주의 담론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고찰」. 『종교연구』 21, 2000, 159-179쪽.
- \_\_\_\_\_, 「신자유주의 유토피아 비판」. 『신학연구』 42, 2001, 431-447쪽.
- \_\_\_\_\_, 「세계화와 카톨릭 교회의 대응: 교황 바오로 2세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4, 2002, 213-239쪽.
- \_\_\_\_\_,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6(2), 2003a, 125-167쪽.
- \_\_\_\_\_, 「신자유주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고찰」. 『종교문화연구』 5, 2003b, 121-137쪽.
- \_\_\_\_\_,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8(1), 2005, 103-136쪽.
- \_\_\_\_\_, 「물질만능, 경제 중심 시대와 가톨릭 사회교리」. 『신학전망』 175, 2011, 2-29쪽.
- \_\_\_\_\_, 「안데스 원주민 공동체경제: 에콰도르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9(1), 2017, 41-67쪽.
- 박성원, 「세계 장로교회, '신자유주의 반대'를 선언하다」. 『월간말』 222, 2004a, 140-145쪽.
- \_\_\_\_\_, 「칼빈의 경제신학과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신학과 목회』 22, 2004b, 175-209쪽.
- 박승인, 「신자유주의 시대와 기독교 신학의 과제」. 『신학논단』 80, 2015, 141-169쪽.
- \_\_\_\_\_,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직신학논총』 54, 2019a, 53-96쪽.
- \_\_\_\_\_,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효율적 이타주의」. 『신학논단』 95, 2019b, 65-97쪽.
- 박승길, 「종교시장의 세계화와 신종교운동의 대응」. 『신종교연구』 25, 2011, 1-23쪽.
- 박혜훈, 「세계화 시대의 원불교 세계교화 방향: 원불교 100년 기념성업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5, 2011, 61-83쪽.
- 성정모, 「세계화된 세계에서 복음선포와 민족문화」, 『신학연구』 40, 1999, 159-174쪽.

- 손규태,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개념과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기독교사상』 694, 2016, 234-247쪽.
- 위평량, 「신자유주의와 NGO의 역할」, 『기독교사상』 45(1), 2001, 44-59쪽.
- 오세일, 「교육 패러다임과 영성교육: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참여영성의 과제」, 『신학과철학』 31, 2017, 157-186쪽.
- 이봉석,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시대 노동신학의 필요성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4, 2016, 69-102쪽.
- \_\_\_\_\_, 「기독교 윤리학에서 본 신자유주의 인간이해와 사회 통합의 가능성 연구: 하이에크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 2018, 125-152쪽.
- 이숙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 담론 여성교인의 주체화양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 2010, 119-148쪽.
- 이찬근,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상』 45(1), 2001, 14-27쪽.
- 이창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세계민중들의 투쟁과 연대」, 『세계의 신학』 41, 1998, 55-70쪽.
- 이혁배,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윤리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1), 2010, 203-223쪽.
- 이혜정, 「통계를 통해서 본 종교인구와 개신교단의 변화」, 『신학과 목회』 44, 2015, 367-387쪽.
- 장윤제,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시대와 민중신학』 8, 2004, 235-268쪽.
- \_\_\_\_\_, 「광야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 『기독교사상』 49(10), 2005a, 50-57쪽.
- \_\_\_\_\_, 「세계화 시대, 생명과 평화의 선교」, 『대학과선교』 8, 2005b, 43-118쪽.
- \_\_\_\_\_,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학과선교』 14, 2008, 160-179쪽.
- \_\_\_\_\_, 「기독교는 신자유주의를 왜 반대해야 하는가2: 신자유주의의 종언, 역사적 비판주의의 몰락」, 『월간말』 273, 2009, 138-139쪽.
- 정강길, 「신자유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기독교」, 『월간말』 273, 2009, 134-137쪽.
- 정승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불교의 대응」, 『한국학논집』 59, 2015, 475-492쪽.

- 조준상,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물결, 어디까지 왔나」. 『기독교사상』 45(1), 2001, 28-43쪽.
- 채수일, 「한국의 경제위기와 선교신학적 과제」. 『신학연구』 40, 1999, 147-158쪽.
- \_\_\_\_\_,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기독교사상』 45(1), 2001, 87-102쪽.
- 최두현, 「세계화에 대한 로즈마리 류터의 분석과 극복, 한국교회를 위한 재구성」. 『신학논단』 92, 2018, 357-387쪽.
- 최은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6)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57, 2018, 257-293쪽.
- 홍순원, 「경제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 신학윤리에서 본 신자유주의」. 『기독교사상』 45(1), 2001, 60-69쪽.

## 국문초록

본고는 신자유주의 논의에 대한 한국종교계의 연구사 검토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연구사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경향과 연구자들의 관심, 비판의 논지와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에 대해 종교 연구자들이 어떠한 주제와 근거들을 주로 연구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연구가 20년 이상 축적된 현 상황에서 연구사 검토를 통해 신자유주의 연구지형도를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연구의 경향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 종교계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장은 종교별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주제들과 논지의 근거들, 연구자들의 관심과 성향, 종교별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연구의 경향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기독교 진보진영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적어도 기존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진영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비판적 논지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었다.

III장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가톨릭 연구자들은 주로 종단의 공식입장을 언급하는데 비해 개신교 신학자들의 기존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기존연구의 논지는 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 둘째는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현상을 윤리, 가치, 정의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내용, 셋째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종교적 특징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 등이다.

본고의 공헌은 신자유주의 연구사검토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과 대안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계는 연구사 검토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은 잘 드러나 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안적 실천방안은 개인들의 연대협력과 실천에 있었고 그 대응상대는 경제를 최고국시로 여기는 정부와 기업, 세계경제기구 등이다. 소위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는 개인의 연대협력과 실천이 더욱 구조적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국가의 정치체제가 다양하지만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 개인의 필요와 복지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일으킨 경제적 불평등구조를 구조적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투고일 2020. 3. 20.

심사일 2020. 4. 20.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한국종교(Korean Religion), 경제위기(Economic Crisis), 연구사(Researcher), 연대운동(Solidarity Movement),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진보 기독교(Progressive Christianity)



## Abstracts

### Review of Neoliberal and Religious Studies: Seeking Religious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Lee, Hye-jung

This paper will focus on existing research on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crisis and the religious response. What influence did neoliberalism have on the Korean religious researchers? How did Korean religious researchers accept and criticize neoliberalism? And what alternatives did researchers offer to counter neoliberalism? With these questions, we intend to critically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through review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can be said to be a review by Korean religious circles on the discussion of neoliberalism. Through the review of the research institute, we intend to analyze the overall research trends, researchers' interests, and criticisms and alternatives in detail. Researcher review work can contribute to grasping the topographic map of future neoliberal research.

After experienc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1990s, I would like to understand what themes and grounds the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mainly in neoliberalism that has been fully developed in Korean societ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related research has been accumulated for more than 20 years, it may be applied in the direction of discovering areas with insufficient research in the future or supplementing the tendency of existing research through the review of research institutes. Through this work,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Korean religiou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neoliberalism.

Chapter II deals with the existing studies by religion and by topic. Specifically, research topics and theories of thesis, the interests and inclinations of research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by relig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zed contents, an attempt was made to explain the overall trend of the existing research.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existing research on neoliberalism has been published steadily in the Christian world, and has been led especially by researchers of the Christian progressive camp. In reality, the voice of

conservative Christians who support neoliberalism has not appeared at least in previous studies. Progressive Christian theologians dealt with a consistently critical argument for neoliberalism.

Chapter III classified and analyzed 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of researchers. Compared to Catholics, the existing studies of Protestant theologians deal with a relatively wide range of discussions, but the thesis of the existing studies on neoliberalism is main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criticism of Hayek, which settled the neoliberal economic order in earnest, the second is the criticism of neoliberalism's features and phenomena in terms of ethics, values, and justice, and the third is an analysis of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neoliberalism, etc.